

치과 중심 비임상시험검사센터 구축한다

전남대에 6월까지, 식약처에 지정 신청 예정

OECD간 시험성적서 인증...수출비용 등 절감

광주시가 지역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남대 치과병원 3층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에 치과 중심 비임상시험검사센터(GLP)를 구축한다.

시는 총사업비 30억 원(시비 20, 전남대병원 10)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시설을 구축하고 식약처에 비임상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로부터 비임상시험검사기관

으로 지정을 받아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OECD 25개 국가간 상호 인정돼 국가에서 추가시험없이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비임상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실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과 관

련된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적합해야 한다.

비임상시험검사센터 구축은 의료기기 시험검사의 핵심시설로 국내에서는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축되는 것으로 광주는 물론 인근 지역의 치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광주에 치과 관련 기업이 110여 개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정형외과, 안과, 화장품산업도 동반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는

2018년 전남대 치과병원 내에 개소한 이래 2019년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치과 의료기기와 의료소재 부품의 시험검사는 물론 제품 개발과 각종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23일 "비임상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 치과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 출증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험 검사 항목을 확대해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다각화와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업무협약식 김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공유서비스업체와의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좌로부터 박진수 코리아모빌리티 부대표, 김중호 행정부시장, 이선형 (주)더이전 라도 출발본부장).

김희재 의원, 내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개최

지역균형발전·전라선 이용객 급증 고속철 구축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상생룸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희재 의원과 이용호, 이상직, 김성주, 김윤덕, 김승남, 소병철, 주철현, 서동용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와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남원시)가 주관한다.

김 의원은 "인구와 산업 절반이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교통 인

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라선을 고속철도로 신설했다면 익산-여수 구간이 기존 98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면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서울-여수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라선 고속철도가 구축되면, 2012년 176만명에서 2019년 65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전라선 승객의 이

용 편의 충족과 함께 여수·순천을 거점으로 하는 남해안권 신성장 관광벨트의 기틀이 다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재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됨은 물론, 반드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선은 2011년 '복선 전철화' 이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 KTX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순천=김승호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점심시간근로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 애용하는 서비스인 슬로러닝입니다.

동구 미로센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선정

광주 동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21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021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도레미 초록별' 프로그램은 지역 내 문화시설을 선정해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특히 이번 성과는 동구 미로센터와 거버넌스 그룹 비탈스페이스(대표 문숙현)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구, 75세 이상 노인 대상 접종 동의 접수

광주 서구는 오는 2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 동의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백신 접종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2분기 시행 계획에 맞춰 진행된다. 서구 관내 접종대상자는 만 75세 이상(1946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 1만 8879명이다.

서구는 본격 접종에 앞서 동별로 동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한다. 통장·전담 직원과 함께 각 세대를 방문, 백신 접종 동의서를 수령하고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남구, 봄맞이 '푸른길 공원' 정비한다

광주 남구는 봄을 맞아 관내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푸른길 공원 전 구간에 대한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진월동 동성고 앞에서부터 남광주역 앞까지 푸른길 공원 산책로 약 4km 구간에 대한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구는 구청 담당부서 공원 관리원 5명과 기간제 근로자 10명 등 총 15명을 투입, 푸른길 공원 주변 제조작업과 쓰레기 및 낙엽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푸른길 공원 산책로 주변에 설치한 운동기구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 작업도 병행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 아동 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광주 북구는 오는 7월까지 광주수창초등학교와 일곡초등학교 돌봄 교실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비만예방사업인 '2021년 건강한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학 협력 사업으로 비만 아동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주 1회 영양사와 운동 처방사 등 전문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 놀이형 영양·신체활동을 진행한다.

영양프로그램은 음식 골고루 먹기, 건강 간식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진 교재 6종과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체험 놀이를 통해 일상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광산구립 신가도서관 프랑스 자수반 모집

광산구립 신가도서관이 '일상의 예술! 프랑스자수를 능숙하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문화·예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동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다.

시민이 코로나19로 멀어진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소통·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소품들로 프랑스자수를 배우고,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장이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바늘집, 티매트, 테이블매트 등 다양한 생활소품의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임형택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분위	1.1배	1.7배	2.1배
3분위	2.1배	2.7배	5.3배
2분위	48,103원		
1분위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